

사회

광주권 의료관광산업 시동

협의회 발족 내일 대규모 심포지엄

비엔날레 등 연계 상품 개발 추진

광주지역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 의료에 회의적인 국가를 잠재시장으로 선별, 국가별 전문 치료 및 시술분야를 중심적으로 마케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와 여수해양엑스포,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역의 국제행사와 연계한 의료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한 진수남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 담당은 미리 배포한 '한국의료관광산

업 현황과 발전전략'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일본·중국 환자에게는 성형·피부관리를, 중동권에는 당뇨·비만 등 전문시술 분야를 타깃으로 마케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또 베트남·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를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로 예상, 별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에서의 의료관광사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병재 시얼병원장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그들의 본국 환자를 유치하는 한편

의료 시설이 열악한 국가의 봉사활동 등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또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에 필적할 만한 의료시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진료가 용이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행업체와 속박시설 등이 총망라된 빈틈없는 마케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택립 학순전남대병원 교수는 "인공관절 치료기술과 같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및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3월 창립 했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농활' 떠나요 4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보성 등 전남지역 4개 군으로 '봄 농활'을 떠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응봉동 전남대학 생활관 앞에서 짐을 꾸리고 있다. /내광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린이·노약자·서민보호 우선”

이금형 광주경찰청장 직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특히 "과잉 수사·무분별한 검문검색·과도한 물리적 행사·전 의경 구타 등 시민에게 지탄받는 과도한 치안정책을 피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와 함께 법질서를 확립, 신뢰받는 광주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북 청주 출신인 이 차장은 청주 대성여상을 졸업, 1977년 순경에 임용된 뒤 서울미포경찰서장·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r

인체 유해 장난감·문구류

판매 금지·강제 회수조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수입업체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유모차를 비롯한 유아용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초등생 스트레스 1위 '학원 다니기'

전교조 설문... 성적 걱정·따돌림 順

국내 초등학생에게 최대의 스트레스 요인은 학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지난달 초교 5~6학년 재학생 145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문제로 전체의 약 32%가 '학원 다니기'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학업·성적 걱정'이라는 답변이 약 29%로 2위를 차지했고 '따돌림(10%)' '건강(8%)' '외모

(6%)' '친구 관계(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방과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학원 수업'은 34.7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주요 답변으로는 'TV 시청(18.5%)' '친구와 놀거나 운동하기(13.6%)' '컴퓨터 쓰기(12.8%)' 등이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가장 재미있게 하는 일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 학생의 31.3%가 친구와 놀거나 운동하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근한 날씨... 가족 나들이 '안성맞춤'

어린이날인 5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맑고 포근해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 좋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며 "다면, 오후 늦게부터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이라고 4일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음 05시 38분 해진 19시 21분

말음 06시 35분 달진 21시 22분

아이들과 나들이 가요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0/25°C
목포	구름조금	10/21°C
여수	맑음	12/19°C
나주	맑음	8/25°C
완도	맑음	10/21°C
구례	맑음	8/25°C
해남	맑음	9/22°C
장흥	맑음	9/22°C
순천	맑음	11/23°C
영광	맑음	9/22°C
전도	맑음	9/22°C
전주	맑음	8/25°C
군산	구름조금	8/22°C
남원	맑음	6/24°C
혹성	구름조금	9/18°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0.5m	식중독지수
	면비다	5~1.0m		꽃기루지수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0.5~1.0m	
	면비다	동~남동	0.5~1.0m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서해	남부 일비다	남동~남	0.5~1.0m	썰물
	면비다	남동~남	1.0~2.0m	목포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0.5~1.5m	15:17
	면비다	동~남동	1.0~1.5m	여수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최저/최고

6(금) 12/22 16(화) 16/23 7(토) 14/24 8(일) 14/24 9(월) 15/21 10(화) 16/19 11(수) 14/22

곡집공원의 야생화

분홍꽃 모양이 앵두 닮은 '봄의 전령사'

〈12〉 앵초

앵초는 10cm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산과 들의 물가나 풀밭의 습지에서 자란다.

앵초를 한자로 '櫻草'라고 쓰는 것을 보면 분홍색 꽃 모양이 앵두꽃을 닮았기 때문인 듯하다.

학명에 붙은 '프리룰라' (Primula)는 리턴어로 처음을 의미하는 '프리무스'(primus)와 봄을 뜻하는 '베리스'(veris)에서 유래한 것으로, 앵초가 봄에 가장 일찍 나오고 꽃을 피우는 식물에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래한 것으로, 앵초가 봄에 가장 일찍 나오고 꽃을 피우는 식물에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SINCE 1982

서울 종로점 OPEN

서울 종로점을 4월 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총점 061-752-9940
전남도 순천점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국제보청기]

총국제보청기
총대 학회
총교 5기
총교 6기
총교 7기
총교 8기
총교 9기
총교 10기
총교 11기
총교 12기
총교 13기
총교 14기
총교 15기
총교 16기
총교 17기
총교 18기
총교 19기
총교 20기
총교 21기
총교 22기
총교 23기
총교 24기
총교 25기
총교 26기
총교 27기
총교 28기
총교 29기
총교 30기
총교 31기
총교 32기
총교 33기
총교 34기
총교 35기
총교 36기
총교 37기
총교 38기
총교 39기
총교 40기
총교 41기
총교 42기
총교 43기
총교 44기
총교 45기
총교 46기
총교 47기
총교 48기
총교 49기
총교 50기
총교 51기
총교 52기
총교 53기
총교 54기
총교 55기
총교 56기
총교 57기
총교 58기
총교 59기
총교 60기
총교 61기
총교 62기
총교 63기
총교 64기
총교 65기
총교 66기
총교 67기
총교 68기
총교 69기
총교 70기
총교 71기
총교 72기
총교 73기
총교 74기
총교 75기
총교 76기
총교 77기
총교 78기
총교 79기
총교 80기
총교 81기
총교 82기
총교 83기
총교 84기
총교 85기
총교 86기
총교 87기
총교 88기
총교 89기
총교 90기
총교 91기
총교 92기
총교 93기
총교 94기
총교 95기
총교 96기
총교 97기
총교 98기
총교 99기
총교 100기
총교 101기
총교 102기
총교 103기
총교 104기
총교 105기
총교 106기
총교 107기
총교 108기
총교 109기
총교 110기
총교 111기
총교 112기
총교 113기
총교 114기
총교 115기
총교 116기
총교 117기
총교 118기
총교 119기
총교 120기
총교 121기
총교 122기
총교 123기
총교 124기
총교 125기
총교 126기
총교 127기
총교 128기
총교 129기
총교 130기
총교 131기
총교 132기
총교 133기
총교 134기
총교 135기
총교 136기
총교 137기
총교 138기
총교 139기
총교 140기
총교 141기
총교 142기
총교 143기
총교 144기
총교 145기
총교 146기
총교 147기
총교 148기
총교 149기
총교 150기
총교 151기
총교 152기
총교 153기
총교 154기
총교 155기
총교 156기
총교 157기
총교 158기
총교 159기
총교 160기
총교 161기
총교 162기
총교 163기
총교 164기
총교 165기
총교 166기
총교 167기
총교 168기
총교 169기
총교 170기
총교 171기
총교 172기
총교 173기
총교 174기
총교 175기
총교 176기
총교 177기
총교 178기
총교 179기
총교 180기
총교 181기
총교 182기
총교 183기
총교 184기
총교 185기
총교 18